공동교육과정 영화와 삶 5차시

영화로 세상 읽기, 실제 사건과 영화

1987



영화 속 인물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사실과 허구 구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얼마나 사실이어야 할까?

영화는 현실 전체를 그대로 옮길 수 없다

- 실제 사건은 오랜 시간, 많은 인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개됨
- 영화는 제한된 상영 시간 안에 이야기를 전달해야 함
- 제작비·촬영 장소·배우 섭외·촬영 기술 등의 제약도 존재함

그래서 영화는 현실을 재구성한다

- 일부 사건을 생략하기
- 여러 사건을 하나로 압축하기
- 여러 실제 인물을 한 인물로 합치기
- 실제에 없던 인물·대사·상황을 창작하기

당연하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영화는 현실과 다르다.

- 왜 이렇게 바꾸어 표현했을까?
- 이 장면은 사실일까?

두 질문을 중심으로 영화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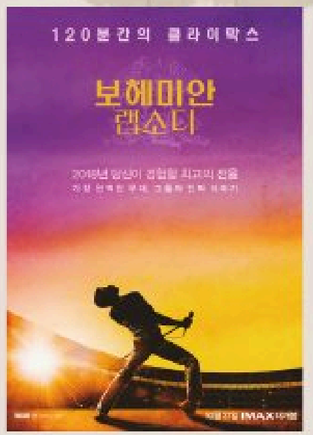




타이타닉(1997)

TRUE
타이타닉 호 침몰 사건
실제 승객 및 승무원의 일화

FALSE
잭과 로즈의 사랑 이야기
선수에서 팔을 벌리는 장면



보헤미안 랩소디(2018)

TRUE
프레디 머큐리와 퀸의 활동
1985년 Live Aid 공연

FALSE
Live Aid 직전 HIV 진단
멤버 해체 후 극적인 재결합



위대한 쇼맨(2017)

TRUE
19세기 미국의 공연 기획자 바넘
장애인, 소수자를 공연에 내세운 활동

FALSE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영웅적 인물상
제니 린드와의 로맨스 등 세부 인물 행적



서울의 봄(2023)

TRUE
1979년 12·12 군사반란
신군부의 군 지휘권 장악

FALSE
전두광·이태신 등 영화 속 인물명
여러 인물의 역할을 이태신 중심으로 압축

실화 영화

= 사실(Fact) + 영화적 재구성(Reconstruction)

1987 (2017) 1987: When the Day Comes

장준환 감독
개봉일 2017년 12월 27일
대한민국 총 관객수 7,233,076명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군상극 영화.

★★★★☆ 이용철 그 시간의 의인들과 감독에게 감사드린다
★★★★☆ 황진미 역사적 사건을 정조준하며 본질에 육박하는 힘!
★★★☆ 허남웅 전.두.환. 반드시 처벌해야 할 역사
★★★★ 한동원 제목에 값하는 규모와 짜임새, 그리고 울림
★★★★ 임수연 87년 6월의 자장을 만든 원자들에 대해서
★★★★ 이화정 스필버그 영화처럼, 단단하고 묵직하다
★★★★ 송경원 끌고 가지 않는데 끌려들어간다
★★★☆ 박평식 뜨겁고 아프다, 감사!
★★★★☆ 김현수 진실과 자유는 광장에서 만난다
★★★★ 이지혜 기록하고, 고발한다
★★★☆ 이동진 희망은 작은 고리들의 연쇄에 있다.

1987 관련 실제 1980년대 시대적 배경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는가?

-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군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누적된 반발
- 대통령 직선제 요구
-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요구
- 고문·강압 수사 등 국가 폭력에 대한 반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1987 관련 실제 사건 연표

1987. 1. 1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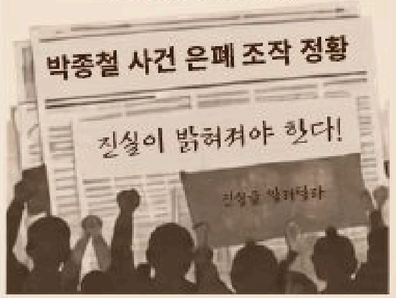


사건 은폐 시도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함

1987. 4. 13.
4·13 호헌조치
전두환 정부,
현행 간선제 유지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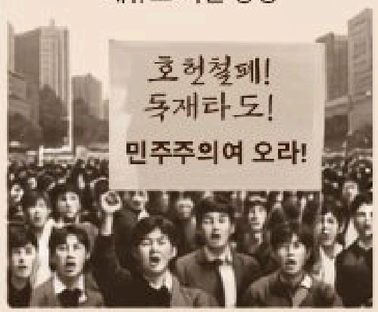
1987. 5. 18.
박종철사건 은폐·조작 폭로
박종철 사건의 진실이 더 드러남
시민들의 분노 확산



1987. 6. 9.
이한열 학생 최루탄 피격
민주화 요구가 더욱 확산



1987. 6. 10.
6월 민주항쟁 시작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민 항쟁



1987. 6. 29.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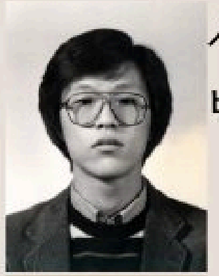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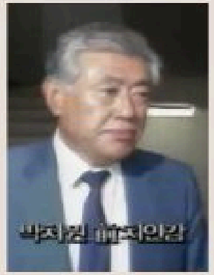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짐

이외 수많은 사건, 장면이 있지만, 영화에선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없다.

1987 관련 실제 인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1.14.)


서울대 학생
박종철



치안감
박처원


기자
신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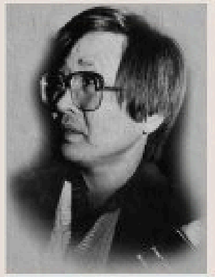

기자
윤상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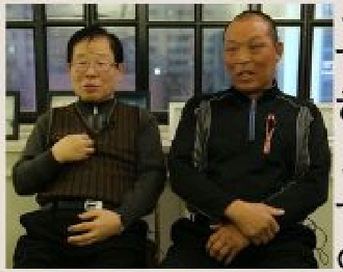


검사
최환


치안본부장
강민창


의사
오연상


부검의
황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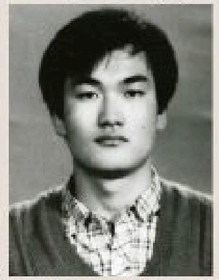

교도관
한재동
보안계장
안유


교도관
전병용


고문 경찰
강진규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


경찰
조한경

6월 항쟁


연세대 학생
이한열


민주화 운동가
김정남


민주화 운동가
이부영


천주교 신부
김승훈

이외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화에선 모두 등장할 수 없다.

실제 인물 → 영화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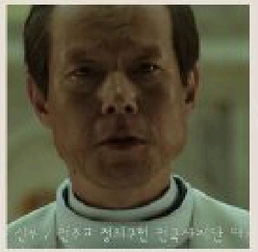




6명의 주연 배우

실제 인물 → 영화 1987


장세동
(문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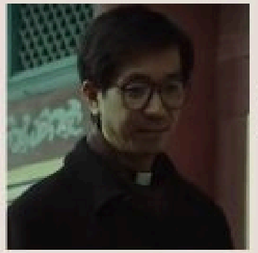

김승훈
(정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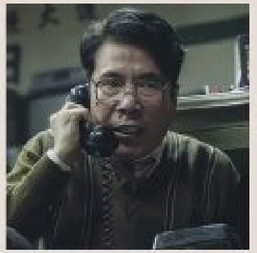

오연상
(이현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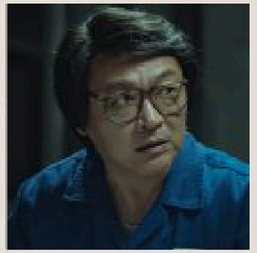

황적준
(김승훈)


정미
(박경혜)


강민창
(우현)


함세웅
(이화룡)


이두석
(오달수)


이부영
(김의성)


안유
(최광일)


박원택
(현봉식)


김정남
(설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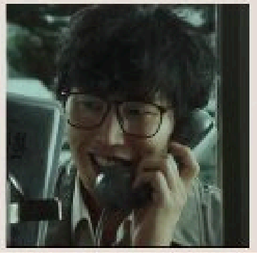

정구종
(고창석)


박정기
(김종수)


이한열
(강동원)


유정방
(유승목)


황정웅
(박지환)


신성호
(이신성)


박월길
(조우진)


박종철
(여진구)

수많은 실존 인물이 영화에 등장하지만, 실제 관련 인물 모두를 영화에 담을 수는 없다.

실제 사건 → 영화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
(여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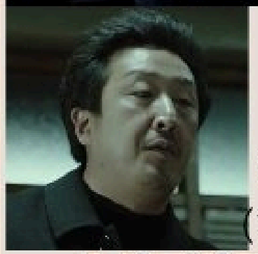
박처원
(김윤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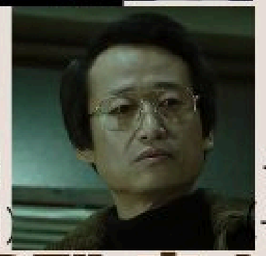


조한경
(박희순)





박원택
(현봉식)



유정방
(유승목)



황정웅
(박지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사람들



최환
(하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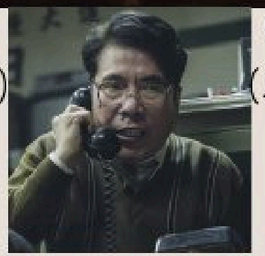


윤상삼
(이희준)





신성호
(이신성)



이두석
(오달수)



정구종
(고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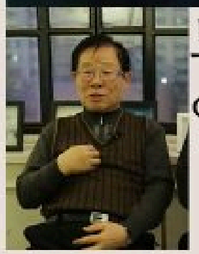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두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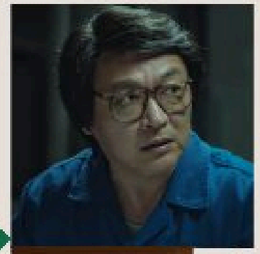
실제 사건 → 영화 1987



안유
(최광일)



보안계장
안유



이부영
(김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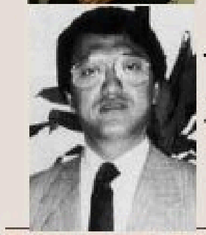


민주화 운동가
이부영



교도관
한재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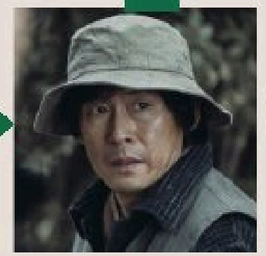


교도관
전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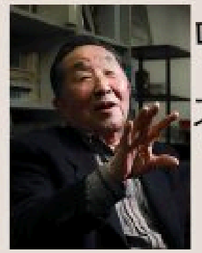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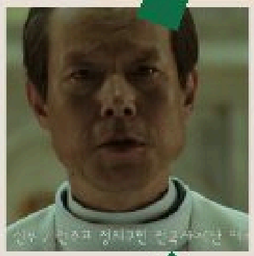
한병용
(유해진)



김정남
(설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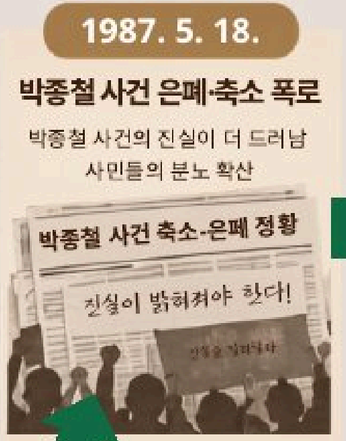
민주화 운동가
김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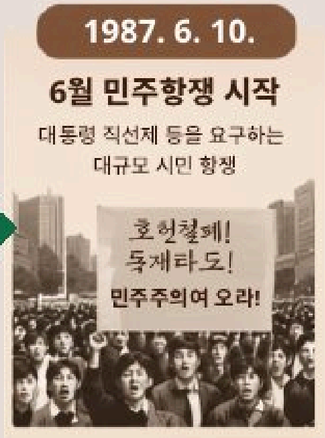


김승훈
(정인기)



천주교 신부
김승훈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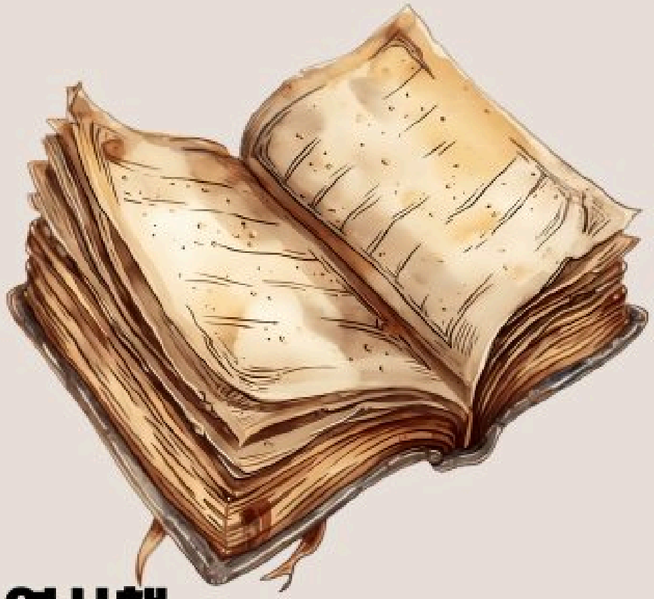
실제 사건 → 영화 1987

1987 이 영화를 통해 하고 싶은 말

**여러 사람이 진실을 이어 전달했고,
그 연결이 결국 역사를 움직였다.**

영화를 통해 감독이 하고 싶은 말

같은 역사, 다른 방식으로 보여 주기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폭로

6월 민주항쟁

사건의 흐름 중심

역사책

- 사건·날짜·인물 중심
- 여러 사건을 전체적으로 설명
-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맥락을 설명
- 사건을 '설명'한다



사람들의 이야기

최환 검사

윤상삼 기자

한병용 교도관

연희

김정남 운동가

시민들

영화

- 인물·장면·대사 중심
- 일부 사건과 인물을 선택
- 인물의 감정과 선택을 보여 줌
- 사건을 '경험'하게 한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 → 진실을 이어 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연희'는 왜 필요했을까?



- 수많은 평범한 시민을 한 인물로 보여 주기 위해
- 관객이 역사적 사건에 감정이입하도록 하기 위해
- 당시 민주화에 대한 무관심 → 관심 → 참여의 변화를 보여 주기 위해
- 당시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표상

연희는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당시를 살아간 평범한 시민들을 대표한다.

그렇다면 영화는 왜 허구를 넣을까?

History

수많은 사람
복잡한 사건
긴 시간

영화적 재구성

MOVIE

인물을 합치고
사건을 압축하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대사와 상황을 창작함

- 복잡한 사건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한 인물에게 모아 보여주기 위해
- 관객이 감정적으로 사건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 영화의 긴장감과 이야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진실을 이어 전달했고,
그 연결이 역사를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쉽고 공감가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허구는 때로 사실을 더 쉽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화의 허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압축할 때
여러 인물의 역할을 한 인물로 합칠 때
당시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할 때
실제 사건의 핵심 의미를 훼손하지 않을 때

×

실존 인물에게 기록에 없는 행동을 부여할 때 > 덕혜옹주(2016)
없던 사건을 사실처럼 제시할 때 > 아르고(2012), 다키스트 아워(2017)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지나치게 미화·왜곡할 때 > 위대한 쇼맨(2017)
관객이 허구를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게 만들 때 > 브레이브하트(1995)

<1987>의 연희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1987년을 살아간 평범한 시민의 변화와 참여를 보여 주기 위한
영화적 허구라고 볼 수 있기에
연희는 비교적 수용 가능한 영화적 재구성으로 볼 수 있을까?

허구는 가능하지만, 역사적 사실의 핵심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https://m.site.naver.com/2gR3d

2교시
실제 사건·인물은 영화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 영화 제목(개봉년도)
-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 영화에서는?
- 왜 바꾸었을까?
-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 허용할 수 있다
  - 문제가 있다

실화 바탕 영화 추천

택시운전사(2017), 변호인(2013), 말아톤(2005), 남산의 부장들(2020), 공작(2018), 실미도(2003), 박열(2017), 동주(2016), 명량(2014), 한산: 용의 출현(2022), 노량: 죽음의 바다(2023), 모가디슈(2021), 도가니(2011), 재심(2017), 제보자(2014), 부러진 화살(2012), 연평해전(2015), 인천상륙작전(2016),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2019), 봉오동 전투(2019), 밀정(2016), 말모이(2019), 영웅(2022), 사도(2015), 남한산성(2017), 천문: 하늘에 묻는다(2019), 자산어보(2021), 코리아(2012),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퍼펙트 게임(2011), 범죄도시(2017), 범죄도시2(2022), 교섭(2023), 대장 김창수(2017), 화려한 휴가(2007), 귀향(2016), 남영동1985(2012), 오펜하이머(2023), 이미테이션 게임(2014), 스포트라이트(2015), 소셜 네트워크(2010), 머니볼(2011), 포드 V 페라리(2019),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2016), 핵소 고지(2016), 쉰들러 리스트(1993), 피아니스트(2002), 노예 12년(2013), 킹스 스피치(2010), 행복을 찾아서(2006), 킹메이커(2022), 탄생(2022), 리바운드(2023), 1947 보스톤(2023), 서울의 봄(2023), 소년들(2023), 시민덕희(2024), 하이재킹(2024), 행복의 나라(2024), 소방관(2024), 하얼빈(2024), 엘비스(2022), 킹 리차드(2021), 하우스 오브 구찌(2021), 13 라이브즈(2022), 에어(2023), 테트리스(2023), 그란 투리스모(2023), 퍼라리(2023),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2023), 밥 말리: 원 러브(2024), 백 투 블랙(2024) 등

늦어도 10시 20분까지 작성해주세요!!
수업은 10시 30분에 진행합니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효성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히든 피겨스(2016)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미국 NASA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 수학자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의 실제 이야기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실제로는?

실제로 캐서린 존슨이 백인 전용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건은 없었다. 영화에서 캐서린이 겪은 화장실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자주 보였지만, NASA에서는 실제로 인종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실제로 화장실 문제를 겪었던 인물은 메리 잭슨이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알 해리슨은 한 명의 실제 인물이 아니라 여러 NASA 관계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다.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캐서린 존슨이 흑인 전용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업무 중에도 먼 거리를 뛰어가야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후 상사 알 해리슨이 이 사실을 알고 화장실의 인종 분리를 없애는 장면을 통해 인종차별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여러 인물과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관객이 당시의 차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색한 것이다.

왜 바꾸었을까?

영화에서는 실제로 여러 인물이 겪었던 인종차별을 캐서린 존슨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관객이 당시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특히, 화장실 장면을 통해 캐서린이 겪는 차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객이 그녀의 어려움에 감정이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상사와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넣어 이야기의 긴장감과 전개를 높이고, 인종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허용할 수 있다

영화의 재미와 감정이입을 높이기 위한 정도의 각색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인물과 사건을 완전히 왜곡하지 않고 당시의 인종차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다은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히든 피겨스(2016)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여성보다 남성을 흑인보단 백인이 우월하다고 여겼던 1960년대에 실제 흑인 여성 세명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존슨이 나사에서 근무하며 우주산업 발전에 공을 세우는 이야기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백인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없자 당당하게 백인 화장실을 이용했던 캐서린 존슨의 일화가 있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유색인종 화장실을 따로 이용해야 해 800m를 뛰어다녔던 메리 잭슨의 다른 대처의 실화가 존재합니다 또 백인 전용 학교에서만 이수 가능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자 메리잭슨이 야간학교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백인학교에 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도로시 본의 경우는 2년동안 이름만 임시 대행인 채로 총책임자 역할을 하며 부서를 이끈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중심서사를 맡은 캐서린 존슨이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며 뛰어다니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실제 캐서린은 누군가의 핀잔에도 신경쓰지 않고 백인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말이죠 또한 메리 잭슨의 소송도 단순하고 빠른 허락이 아닌 오직 야간 수업, 그 수업을 들으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부 허락이었다고 합니다. 도로시 본의 일화도 영화에서는 한달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등장했습니다 셋은 친구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 입사년도도 일하는 부서도 달랐다고 합니다

왜 바꾸었을까?

아마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역사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인 것 같다 캐서린이 실제처럼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을 사용했다면 관객들은 이러한 부당함과 차별을 알 수 없었을테니 또 이 사건에서 화장실 표지판을 부술 때 카타르시스 또한 느낄수 있었을것이다
이들을 친구로 설정한 것은 감독이 이 영화를 단순히 천재의 영웅담이 아니라 소외당하던 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또 이들을 도와준 백인과 나쁘게 대한 백인을 크게 허구의 인물로 두명 설정해 사회에서의 벽과 수고를 좀 더 잘 와닿게 표현한 것 같다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 허용할 수 있다
  감독이 전달하고 싶었던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흑인, 유색인종의 차별이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의 일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박나윤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 **그린북 (2019)**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 **그린북은 인종차별이 심했던 1960년대 배경으로 미국 남부로 피아노 투어를 위해 운전사 겸 경호원으로 고용된 토니발레롱가와 그를 고용한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 박사의 이야기**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 **돈 셜리 박사는 치킨을 먹어본적이 있으며 흑인 문화와 완전 동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과 연락도 자주했다. 1년 반동안 투어를 진행했다.**
- 영화에서는? — **돈 셜리 박사가 치킨을 한번도 먹어 본적이 없어서 토니가 치킨을 먹는 법을 가르쳐준다. 셜리 박사는 동생이 어디에서 뭐하는지 관심이 없는것 처럼 묘사된다. 그리고 2개월 동안 투어를 진행했다.**

왜 바꾸었을까? — **인종,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친구가 된다는 극적인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각색 한게 아닐까 싶다.**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 판단하기 어렵다 — **투어 날짜 기간은 몰라도 발레롱가와 돈 셜리 유족들 마다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말이 좀 다르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박채은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 말모이(2019)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과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사전 편찬 활동을 바탕으로 한 영화.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 실제로 조선어학회는 우리말을 지키고 사전을 만들기 위해 우리말과 각 지역의 사투리를 수집했다. 사전 편찬 작업은 주로 193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사투리 공청회도 실제로 열렸다 하지만 영화처럼 극장에서 비밀리에 열린 것이 아니라 온양의 예배당이나 진료소 등에서 따로 진행되었다.
- 영화에서는? — 영화에서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 김판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또한 1940년대를 배경으로 사투리를 모으고 비밀리에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했으며, 사투리 공청회도 극장에서 비밀리에 열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왜 바꾸었을까? — 실제 역사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가상의 인물인 김판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관객이 사건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영화의 이야기 흐름에 맞게 일부 장면을 재구성한 것 같다.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 허용할 수 있다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부 인물과 장면을 영화의 내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므로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역사와 영화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구분해서 본다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박수민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자산어보(2021)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1801년 신유박해로 흑산도에 유배된 실학자 정약전의 이야기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정약전·정약종·정약용 삼형제는 천주교(서학)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탄압받았고, 정약종은 순교했으며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각각 유배되었다. 정약전이 완성한 『자산어보』 서문에는 흑산도에 살던 '창대'라는 청년이 물고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책 완성을 도왔다는 짧은 언급만 남아 있을 뿐, 그의 신상이나 정약전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창대의 본명은 장창대(장덕순)로 추정될 뿐이다.

- 영화에서는?

영화는 서문의 짧은 언급을 토대로 창대의 가족사, 소꿉친구 복례와의 관계, 신분 상승을 위해 성리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야망, 정약전과 스승-제자 관계로 발전해가는 우정과 갈등 등 대부분의 서사를 새롭게 창작했다. 또한 극중에서 '정조', '영조'라는 호칭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엔 '정종', '영종'으로 불려야 맞으며(묘호가 '조'로 바뀐 건 고종 때), 정조가 정약전을 독대하는 장면도 역사적 사실과 창작이 섞여 구성된 장면이다.

왜 바꾸었을까?

『자산어보』 서문에 남은 창대에 대한 기록은 몇 줄에 불과했기 때문에, 감독은 그 여백을 상상력으로 채워 신분을 초월한 두 인물(사대부 정약전과 평민 어부 창대)의 우정과 사상적 교류를 극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실학과 성리학,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인 인물 서사로 풀어내고 관객이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영화적 재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 허용할 수 있다

창대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극히 부족했던 상황에서, 감독은 남아 있는 사실(자산어보 서문의 언급)을 존중하면서도 그 공백을 상상력으로 메워 정약전이라는 인물과 그의 사상을 더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신유박해와 유배라는 역사적 사실의 큰 줄기는 왜곡하지 않았고, 세부적인 인물 서사의 각색은 영화적 완성도와 주제 전달을 위한 정당한 재구성이라고 판단된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윤현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왕과 사는 남자(2026)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수양 대군(세조)에 의해서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된 단종과 단종이 최후를 맞이한 이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 등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자료를 조사해 보니 단종이 최후를 맞이할 때 세조실록에서는 단종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자살하였다 기록되어있고 선조실록에서는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진 영월 주민들의 증언이 기록되어있다. 또 숙종실록에서는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단종을 찾아가 차마 아무 말도 못하자, 그를 모시고 있던 자가 그를 해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단종이 한명회의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며 엄흥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결국 엄흥도가 단종의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왜 바꾸었을까?

실제 역사와 비교하였을 때 영화에서 단종의 최후를 재구성하여 영화가 더 극적이게 연출되어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고 관객들이 영화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엄흥도의 충심을 강조하여 관객들이 엄흥도라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 허용할 수 있다

결국 왕과 사는 남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종이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아닌 유배를 간 단종이 그 지역에서 지내던 모습과 엄흥도의 충심이라 생각한다. 단종의 최후를 재구성하게 되면서 단종이 유배된 후 사망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엄흥도의 충심을 더 극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시안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왕과 사는 남자(2026)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단종과 엄흥도, 수양대군 등..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단종은 1457년 왕위에서 물러난 뒤 조정의 결정에 따라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쪽은 험한 지형으로 막혀 있어 유배지로 적합한 곳이어서 유배지가 청령포로 결정 된 것이고, 실제 기록에서도 엄흥도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단종의 유배지를 청령포로 정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엄흥도가 처음부터 유배 오는 사람이 단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난한 광천골 마을을 살리기 위해 청령포를 유배지로 유치하려고 한다. 이후 유배 온 사람이 얼마 전까지 왕이었던 단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영화 전반의 내용이 전개되어진다.

왜 바꾸었을까?

역사적 사실만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엄흥도와 단종의 만남을 극적으로 표현해 관객의 흥미와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또 엄흥도가 처음에는 단종인 줄 몰랐다는 설정을 통해 두 인물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 허용할 수 있다: 영화는 역사 기록과 달리 재미와 몰입을 위해 어느 정도 각색하는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크게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각색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더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다면 허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민준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 공수부대원이었던 닐랜드의 실제 사건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제 사건의 주인공인 닐랜드 중사는 형제 3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군 당국의 안전 조치에 따라 후방으로 보내져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대 전체가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극적인 구출 작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밀러 대위와 8명의 대원들이 위험한 수색대를 구성해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 여러 대원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이고 극적인 과정이 연출

왜 바꾸었을까?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럿이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극적인 수색 작전을 추가함으로써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고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애라는 주제를 관객에게 훨씬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연출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문제가 있다

일단은 영화에서 실화를 재구성하는것은 왜곡이라 생각한다 고작 재미와 긴장감 이런 효과를 얻기위해 재구성을 하는것은 아니라고본다 영화가 유명해지면 실화를 재구성한 장면이 허구에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믿을수 있기때문이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동혁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기, 네 형제가 모두 참전했다가 형제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생존자가 귀국하게 된 미국 나일랜드 가문의 사례가 모티브가 되었다.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실제 나일랜드 형제의 이야기는 한 부대가 병사 한 명을 찾아 나서는 구출 작전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네 형제 중 로버트와 프레스턴은 노르망디 전투 초기에 전사했고, 육군항공대 조종사였던 에드워드는 버마 상공에서 실종되어 전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101공수사단 소속으로 노르망디에 낙하했던 막내 프레더릭 프리츠 나일랜드는 형제들의 소식을 알게 된 뒤 군종신부 프랜시스 샘슨의 조치로 귀국해, 남은 전쟁 기간을 헌병으로 복무했다. 즉 실제 사건의 핵심은 전투를 통한 구출이 아니라 마지막 생존자를 귀국시킨 행정적 절차에 가까웠다. 또한 전사한 줄 알았던 에드워드는 일본군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1945년 살아 돌아와, 결국 네 형제 중 두 명이 전사했다.

-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밀러 대위가 이끄는 8명의 분대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제임스 라이언 한 명을 찾는 수색 작전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동 과정에서 대원들이 한 명씩 희생되고, 라이언은 찾은 뒤에도 귀환을 거부한 채 부대와 함께 가상의 마을 라멜을 방어하며 이 전투에서 밀러 대위까지 전사한다. 도입부의 오마하 해변 상륙 장면도 실제와 다르다. 프리츠는 공수부대원이라 해변으로 상륙한 것이 아니라 낙하산으로 강하했기 때문이다. 라이언이라는 인물과 수색 작전, 라멜 전투는 모두 영화적 창작이며, 에드워드가 생환했다는 실제 결말도 영화에는 담기지 않았다.

왜 바꾸었을까?

실제 프리츠의 귀환 과정은 행정적인 절차에 가까워 영화의 중심 사건으로 삼기에는 극적인 긴장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화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희생되는 상황을 만들어, 전쟁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관객이 스스로 생각하게 했다. 또한 오마하 해변 상륙 장면을 앞에 배치해 전쟁의 참혹함을 먼저 각인시킴으로써, 이후 등장하는 희생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도록 했다. 에드워드의 생환을 담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형제의 죽음이 되돌려지면 희생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영화가 던지려는 질문도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 허용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실제 나일랜드 형제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한 전기가 아니라, 그 사례에서 출발해 새로운 인물과 사건을 만들어낸 작품이다. 주인공의 이름도 실존 인물과 다르고 라멜 역시 실재하지 않는 지명이어서, 애초에 실화를 그대로 옮긴 작품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반면 상륙작전의 참상은 사실적으로 그려 전쟁을 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구성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영화 속 구출 작전이 실제로 있었던 일로 오해되기 쉬우므로, 실제 사례와 영화의 이야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예담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 **항거:유관순 이야기 (2019)**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 **3·1운동, 유관순, 권애라, 니시다**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 실제로는? — **오빠 유우석 열사는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당시 현장에 없었고,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수감 중이었다.**
- 영화에서는? —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에서 유관순과 함께 운동에 참여한다.**

왜 바꾸었을까? — **실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가 부모님을 잃었는데 이때 오빠까지 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일제의 탄압 속에서 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과정과 남매가 느꼈을 절망감 그기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의지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 허용할 수 있다 —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인물의 감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이 인물의 상황에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면서 영화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교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권명훈 학생

영화 제목(개봉년도)

핵소 고지(2016)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 또는 인물

데스몬드 도스/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무기 소지를 거부, 의무병으로 입대함. 왕따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신념을 지킴.
배경:오키나와 전투/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중 하나

실제와 영화에 차이나는 장면

실제로는?

주인공인 도스가 총을 거부한 결정적인 계기
영화 속 장면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자 이를 빼앗아 위협했던 트라우마
실제 장면 : 아버지가 삼촌과 술을 먹고 다투다 총을 꺼냈고,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려 총을 빼앗아 도스에게 숨기게 함
아내와의 첫 만남
영화 속 장면 : 헌혈하러 병원에 갔다가 간호사인 도로시를 보고 첫눈에 반함
실제 장면 :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났고, 당시 도로시는 간호사가 아니었음. 전쟁 후 부상 입은 도스를 수양하기 위해 간호사가 됨.

영화에서는?

수류탄을 발로 차내고 쳐내는 장면
영화 속 각색 : 참호 속으로 날아온 일본군의 수류탄을 도스가 발로 차내고, 이어 날아오는 다른 수류탄은 손으로 쳐내며 전우들을 구하다 다리에 중상을 입는 장면으로 연출했다.
실제 사실 : 참호 안으로 떨어진 수류탄을 전우 대신 몸으로 막기 위해 발로 짓누르듯 덮쳤고, 이 과정에서 수류탄이 터져 다리와 몸에 파편이 박히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왜 바꾸었을까?

실제보다 군대와의 갈등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 주인공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보여주고 감옥에 갇힌 주인공에게 더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수류탄을 발로 차는 장면을 통해 위험한 전쟁터의 긴박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더 화려한 연출을 더했습니다.
실제 도스는 부러진 팔로 기어가고 부상자에게 들것을 양보하는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을 했다. 관객들이 너무 거짓으로 느낄까 봐 오히려 일부 실제 영웅담을 줄여서 연출했다.

이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은

허용할 수 있다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사건과 인물의 재구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을 일부 바꾸거나 가상 인물을 추가했더라도, 주인공 도스가 무기 없이 75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핵심적인 사건과 그의 신념을 훼손하지 않고 잘 살려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영화와 삶
공동교육과정

10월 24일(토)에
온라인 수업 재개하겠습니다

다들 메리 추석!

